

요직(要職)은 요직(尿職)?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한국의 정부나 기업에서 요직(要職)이란 어떤 자리인가?

우리말 사전에 의하면 요직(要職)이란 '중요한 직위, 또는 직업'이다. 이에 반하여 한직(閑職)이란 '한가하고 중요하지 아니한 직위 또는 직업'이다. 따라서 요직이란 중요한 영향력과 권한과 책임이 막강하여 사명감과 책임감이 출중한 인물이 앉아야 하는 자리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지극히 합리적으로 직책이 구분되었다면 요직과 한직의 구분은 없어져야 한다. 중요한 직책과 중요하지 않은 직책이 본질적으로 어디 있겠는가? 다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진 자리라면 가치의 우열이 있을 수 없다. 다만 윗자리에 갈수록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 당연한 점에서 요직이라면 요직이라할 수 있을 것이다.

일언이폐지하고 현실에서는 요직이 존재한다.

현실적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리를 말한다고 하겠다. 윗자리여서 영향력이 크기 때문만이 아니다.

중간 위치 건 아랫자리이건 상관없다.

'향응과 접대를 받는 자리' '부정한 돈을 먹을 수 있는 자리' 그것이 요직이란 얘기다. 그러니 더러운 냄새나는 자리다. 따라서 요직(尿職)이다. 더러운 분뇨직(糞尿職)이다.

일본 대장성의 관료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향응을 받아 문제가 됐다는 보도처럼 한국관료들도 여러모로 부패 먹이사슬에 걸려 있는 것 같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구매담당이나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자금지출 담당은 언제든지 부패의 유혹 앞에 놓여져 있다. 웬만큼 지독한 사람이 아닌 한 부패 먹이사슬에서 밖으로 빠져있기 힘들다.

부패먹이 사슬에서 빠져있기 위해서는 조직내 구성원 사이에서 '왕따'당할 각오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만큼 더 열심히 또 더 깨끗을 유지해야 한다. 필자의 체험상 그것은 지독한 고통이다.

취꼬리만한 정당한 봉급만으로 체면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야 하고 동시에 정신적 고문 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걸 이겨내기 힘들어 시간이 흐를수록 함께 부패해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부패하고 부정한 돈 '뽕땅'을 먹는 요직의 인간, 일테면 구매담당이나 자금지급 담당들은 혼자 먹지 않는 영리함이 있다. 감독자들에게 상납한다. 또 주위에 조금씩 나누어 주는 의리(?)가 있다. 조직자체가 썩는 것이다.

다함께 더러운 공범자들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서로서로 감싸준다. 이를 올바르게 휘어잡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조직의 상당 부분을 도려 낼 각오를 해야 한다. 의약분쟁처럼 목숨을 건 치열한 저항 때문에 업무가 마비 될 수도 있다. 아픈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결단 내리기가 쉽지 않다.

의류업계에서 유능한 인재를 스카웃 해가며 의류 내수사업을 착수하여 잘 나가던 FILA 코리아의 경우를 보자. '유능함보다 깨끗함'을 기치로 윤사장이 깨끗지 못한 조직 구성원을 수술해 냈다는 사실은 내외의 반발을 잠재우는 고통이 따랐을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사업을 접을 수도 있다는 내면의 결심까지도 필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해고당하는 이들의 반발은 물론 그들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조직적 저항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깨끗하고 사려 깊은 회사내의 간부들조차 업무마비를 염려했다.

유능하여 총애했던 그러나 썩은 직원을 도려낼 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겠는가. 한국 풍토에서는 어느 정도의 썩음은 상례처럼 눈감아 주어야 한다는 고급 간부의 충언 등은 모두 일리 있는 현실적 대안이었을 것이다. 이를 물리치면서 더러움을 제거한 윤사장의 용단은 깨끗한 제품, 깨끗한 사원, 깨끗한 기업 이미지를 단시간에 창출하는데 성공했다. 비상한 묘책이 아니라 평범한 진리-오로지 깨끗함 속에 유능함을 담을 수 있다-를 믿고 실천에 옮긴 것이 그의 성공의 기틀인 셈이다.